

한국 최초 근대 극작가 김우진 문학·삶 조명

31일 무안 월선리예술인촌 초흔예술제 문학예술 집담회·창작공연 등 열려

지역 문학·문화예술적 관점 접근 시도
'김우진·윤심덕 위한 품바 무곡' 공연도



〈목포문화관 제공〉

김우진(1897~1926)은 한국의 최초 근대 극작가라는 수식어가 따른다. 또한 1926년 일본의 시모노세키에서 부산으로 오는 관부연락선에서 소프라노 윤심덕과 현해탄에 몸을 던진 일화의 주인공이다.

음력으로 8월4일은 김우진과 윤심덕의 기일이 다. 현재 김우진의 가묘는 무안 월선리 말미산에 있으며 그의 부친 김성규의 묘는 무안 해제에 있다.

김우진초흔예술제가 오는 31일 오후 5시 무안 월선리예술인촌 한옥마을에서 열려 눈길을 끈다. 김우진초흔예술제 추진위원회가 개최하는 이번 예술제는 현해탄을 넘어 새로운 예술생태계를 탐색해 보는 시간이다. 31일부터 일주일동안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기일에 맞춰 초흔제와 문학예술 집담회, 창작공연, 전시회, 문학답사 등으로 진행된다.

당시 무안과 목포를 비롯한 전남 서남권에는 김우진의 부친인 '김성규의 땅을 밟지 않고는 움직일 수 없다'는 말이 있을 만큼 부유한 집안이었다. 김우진이 현해탄에 몸을 던진 이유가 윤심덕과의 로맨스 때문만이었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다. 단순한 연인간의 정사나 부자간의 갈등으로만 해석하기에는 사실 무리가 없지 않다.

김우진의 부친 김성규가 장성군수였던 탓에 김우진은 관아에서 태어났다. 이후 목포에서 소학교를 다니고 일본으로 건너가 구마모토농업학교를 졸업한다. 와세다 대학 예과에 입학해 1924년 영문과를 졸업하고 다양한 창작활동을 전개한다. 원

래의 꿈은 시인이었으나 대학시절부터 연극을 지향해 1920년 동지들과 연극연구단체 극예술협회를 조직하기도 했다.

이번 초흔예술제에서 가장 관심을 모으는 프로그램은 문학예술 집담회 '김우진 다시 읽기'. 문학 분야뿐만 아니라 김우진의 사상, 김우진 문학의 수용 방안 등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먼저 한국과 일본 문학을 비교 연구해온 한성례 문학평론가는 '김우진의 사상적 흐름 탐색-아리시마 다케오를 중심으로'를 발표한다. 한성례 박사는 동시대 문학인으로서의 아리시마 다케오와 김우진의 문학과 생애를 조명한다.

한성례 박사는 발표문에서 "아리시마 다케오는

미국으로 유학해 영문학, 러시아문학에 심취했는데 유교 가정에서 성장했지만 서구 근대사상에 심취했던 김우진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우진의 사상적 바탕이 니체, 마르크스 같은 철학자이자 러시아혁명 이후의 사회주의자였다"며 "이런 점도 아리시마 다케오와 유사점"이라고 덧붙였다.

김우진의 동생 김철진은 당시 전남서남권 최초 문예지 '호남평론'을 창간한 유명한 평론가였다. 김우진의 아들인 김방한은 한국 언어학의 태두라 불릴 만큼 언어학 연구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방한 교수로부터 직접 언어학을 수학한 정성훈 교수(목포대 국문과)는 이번 집담회에서 '김방한의 근대 언어학 도입과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이동순 조선대 자유전공학부 교수는 '김철진의 호남평론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발표한다.

김우진 문학의 지평을 확장하기 위한 발표도 진행된다. 박관서 시인은 '한국 현대문학에 있어서 김우진문학의 수용방안'을 주제로 지역문학적 관점, 문화예술적 관점에서의 접근을 시도한다. 이어 박금만 무안신문 대표는 '김우진초흔예술제의 향후 진행 방안 모색' 등에 대해 발표를 할 예정이다.

집담회 외에 무안지역 공연예술인들이 합심해 김우진과 윤심덕의 영혼을 기리는 초흔무대와 각설이연희놀이팀의 '김우진과 윤심덕을 위한 각설이품바 무곡' 공연도 펼친다.

또한 월선리예술인마을에 거주하는 화가, 도예가, 조각가, 서예가 등 다양한 조형예술인들이 'Art House in 월선리'를 주제로 오픈스튜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전국 유명 예술인들의 시산 문낭송 및 예술토크와 함께 하는 '월선리예술인의 밤'은 마을활동방에서 열린다. 이튿날 김우진초흔묘에서는 판소리 명창 김영희 명창의 축원비나리 등 초흔제가 예정돼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1회 조태일문학상에 이대흠 시인

수상시집 '당신은 북한에서 온 사람' 9월 7일 곡성서 20주기 문학축전



이대흠 시인

제1회 조태일문학상에 장출신 이대흠 시인(55)이 선정됐다. 수상시집은 '당신은 북한에서 온 사람'이며 상금은 2000만원.

죽형조태일시인기념사업회는 이대흠 시인이 제1회 조태일문학상에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심사위원회(신경림 시인, 염무웅 평론가, 최두석 시인)는 "전라도에서도 남도의 지역말을 맛깔나게 쓰는 데 오랫동안 공들인 시인인데 이번 시집의 경우 그 방면의 구사가 더욱 활달하고도 적실하다"고 밝혔다. 1994년 '창작과비평'을 통해 작품 활동을 시작한 이대흠 시인은 시집 '귀가 서럽다', '눈물 속에는 고래가 산다' 등을 펴냈으며 육사시문학상 젊은시인상, 불교문예작품상, 애지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한편 죽형조태일시인기념사업회는 고인의 20주기를 맞아 오는 9월 7일 문학축전을 연다.

곡성레저문화센터 동아아트홀에서 열리는 이번 축전에는 조태일 시인의 삶과 시세계를 기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강대선, 김숙희, 박관서, 석연경, 주명숙 시인의 시낭송을 비롯해 곡성 어린이들은 조태일 시인의 시 '입장간가에서'를 낭송한다. 씨소뮤지컬컴퍼니는 뮤지컬 '남바'를 공연하며 월드뮤직그룹 루트머지는 전통음악 산조에 자유스러운 형식을 접목한 퓨전음악을 들려준다.

이밖에 조태일 시인의 대표시를 비롯해 박남준, 손세실리아, 이오우, 정원도 등 시인들의 추모 시에 서양화가 한희원의 작품을 시화로 선보이

배너시화전 '그리운 쪽으로 고개를', 전 년고찰 태안사 문학 기행, 세미나 '분단 극복과 통일 지향의 시문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조태일문학상 시상식도 20주기의미를 풍성하게 채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1시 곡성레저문화센터 대강홀에서 통일을 준비하는 젊은 작가 심포지엄이 '분단 극복과 통일 지향의 시문학'을 주제로 개최된다. 동대 하상일 교수가 '분단극복과 통일지향의 재일조선인 시문학'을 주제로 기조 발제를 하고, 이동순 시인이 '조태일 시의 통일 담론적 고찰'을 발표한다. 이어 '조태일의 글쓰기와 통일적 상상력' (정민구 전남대 BK연구교수), '조기천의 장편서사시 '白頭山'의 창작도대' (김낙현 중앙대 교수)가 이어지며 권진희(서울 불암중 교사), 이정관(전북 효문여중 교사), 지현배(동국대 교수)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한편 곡성 태안사에서 태어난 조태일 시인은 광주서중, 광주고를 거쳐 경희대를 졸업했다. 1964년 경향신문 신춘문예에 당선돼 문단에 나왔고, 시집 '아침선박', '식칼론', '국도' '혼자 타오르고 있었네' 등을 펴냈다. 1969년 '시인'지를 창간해 김지하, 양성우, 김준태, 박남준 시인 등을 발굴했으며 편운문학상과 만해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곡성 조태일문학관 전시실.

'타이피스트' 무대에

연극 '아름다웠던 시간' 앙코르 9월 2~8일 예린소극장



극단 예린소극장이 연극 '아름다웠던 시간' (사진)을 앙코르 공연으로 선보인다. 9월 2~8일 평일 오후 7시 30분, 주말 오후 4시~7시 30분 예린소극장.

이번 공연에서는 메레이 시즈걸의 '타이피스트'를 각색한 작품을 무대에 올리며, 지난 7월에 펼쳐진 공연을 다시 만나볼 수 있는 자리다.

아침차게 미래의 성공을 호언하는 장팔복과 막연한 사랑을 꿈꾸면서도 희망 없이 하루를 사는 전소녀. 20대에 직장 동료로 만나 평생을 같은 사무실에서 지내며 감정싸움과 연인 같은 사랑을 반복하던 이들은 어느덧 반백의 나이가 돼 회사를 퇴직하는 마지막 날에 접어들었고, 서로에게 못 다한 말을 전한다.

40여년의 시간의 흐름을 표현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분장에 변화를 주고, 고전 대중가요를 활용하는 등 연출을 선보인다.

극단 예린 대표 윤여송씨가 각색·연출을 맡았으며, 장팔복 역에 정이형 배우, 전소녀 역에 강원미 배우가 출연한다.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김희정 교수 작품 '프랑스 여자'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초청 상영

조선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김희정 교수의 '프랑스 여자'가 29일부터 9월 5일까지 열리는 '제21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에서 관객을 만난다.

영화는 오는 30일 오후 5시, 9월 1일 오후 3시 메가박스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 상영되며, 지난 1~2년 동안 전세계에서 떠어난 여성영화들을 조명해 여성영화의 현주소와 미래를 확인하는 작품들로 구성된 '새로운 물결' 섹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번 작품은 20여년의 타지 생활을 마치고 귀국한 미라가 우연히 19년전 과거로 되돌아가는 이야기다. 2015년과 1997년 시간을 교차하며 아픈 과거와 대면하는 미라를 보여주고 '죽음의 뒤에 무엇이 있는가?' 등 질문을 던진다. 김 교수는 2007년 영화 '열세살 수아'로 데뷔해 부산국제영화제와이드 앵글 부문, 서울국제영화제 국제경쟁부문 퍼스트컷 신인감독상 등을 수상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인문지행, 오디오북·전자책 체험 '책이음버스' 운영

"오디오북·전자책 체험하러 '책이음버스'에 오세요"

책이음버스는 전자책과 오디오북 등 새로운 매체의 출판콘텐츠 등을 만날 수 있는 참여형 체험버스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지원한다. 특히 서점이 없는 군 지역을 대상으로 책문화 체험할 수 있게 하는 데 초점이 맞

춰져 있다.

(사)인문지행이 2019년 '책이음버스'를 운영한다. 인문지행이 수행하는 책문화 확산 사업인 '책이음버스'는 오는 12월까지 진행하며, 오디오북과 전자책 대중화를 위한 체험 위주로 진행된다.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사전에 신청해야 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062.220-0551

어려분~ 부자되세요!

광주갤러리경매장 동구 대인동 동부소방서후문앞 침종은빌 1층 수석, 동양화, 서양화, 민속품 매주 토요일, 일요일 오후2시부터 ☎ 010-6778-9330	완도전북 나주시 나주로 131 (나주신협옆) 산지 직송 도·소매 전국택배가능 ☎010-2831-9257	청강창호 북구 청계로 67(용봉동) 현대하이샤시 + 피엔에고샤시 제작설치전문 ☎062)528-7711, 010-3612-9794	동양철학원 동구 불로동 11-2 (평화시장 옆길) 사주, 작명, 개명, 신수, 공합 택일, 개인지도 함. ☎062)224-7687, 010-2611-7687		
(주)로만손시계 (주)오리엔트시계 동구 호남동 13-3 금, 은, 고급시계 상담대환영!! 광주, 전남 대리점 A/S센터 ☎062)232-0038, 010-2290-0038	학산운명감정원 동구 대인동 고운하이츠 오피스텔 302호 사주, 작명, 개명, 공합, 신수, 택일 사업, 시험, 진급, 결혼, 중매 (경력33년) 원장 전용석 ☎ 010-8003-9000	태극익스프레스 동구 계림동 519-36(구,계림시장동) 포장이사, 일반이사, 피아노 인부대기 각종 화물 바꾸니 무료 친절,신용,분위 ☎062)222-2424, 011-664-2202	양지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부영아파트 정문앞 아파트, 빌딩, 원룸, 투룸, 상가 임야, 토지 경매·권리분석 대표 정민각 ☎ 062)263-2223	무크광주세정점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웃렛 2층 258호 화사한 봄 신상품 대량인고 남·여 20~40% 세일 (일부품목 제외) ☎062)370-9258	클로버부동산 북구 필문대로11번길 6 (풍향동) 모든 부동산 사고 판니다. 임야, 전답, 토지, 상가건물 재건축·재개발 매매임대 ☎ 010-5707-6676
토산철학원 북구 두암동 예텐산부인과 정문옆 작명, 개명, 사주, 신수 공합, 택일, 상호명 개인지도함. 대표 이태연 ☎010-4106-5055	그집고기 북구 침단 연신로 107번길 5-20 (침단 2지구 문화신협 뒤) 편·돼지고기 전문·달걀 대표 양병학 ☎010-6648-8842	으뜸공인중개사 북구 두암동 동시민교회앞 골목 아파트, 빌딩, 원룸, 주택, 상가 토지 전월세 및 매매임대 분양권 상담알선 책임중개 전문 ☎062)263-5383,010-6338-5383	고전방 동구 공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062)224-4869	청학철학원 북구우치로 39-1 (충흥신협옆2층) 작명·사주·운세·공합·택일 시험·승진·사업·재물·직업 부부교습 및 전문 연구원 청학 서광호 ☎010-9866-2332	고흥나루터 동구 지산동 705-9 (법원뒷길) 하모(침장어), 사브사브전문점 바다장어구이, 장어탕 대표 모복자 ☎062)222-3092
초대화랑 동구 중앙로 196번길 15-16 (공동 54-2)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062)222-2516	박당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 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062)222-6866	석당화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062)222-3118	신신예술의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서 ☎062)222-1936	국수나무용봉점 북구 용봉동 109-4번지 (국민은행 건물내) 모든 메뉴 포장가능, 도시락 단체 주문 받습니다 ☎062)526-5475, 010-8621-5959	금강버티컬 버티컬, 커튼, 블라인드, 홀딩도어 콤비롤스크린, 전동롤스크린, 우드블라인드, 실사롤스크린, 허니콤블라인드의 제작 및 시공 ☎062)514-6118, 010-5627-6119